

사 기말과제

영어영문학과 2014학번 이정기

1. 망탈리테 사관으로 보는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고려 왕조 때 김부식이 편찬한 역사서로, 신라·고구려·백제라는 삼국의 역사를 다룬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고(古)의 사서이다. 김부식은 역대 중국 사서를 넓게 익히는 자가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 고대사를 제대로 아는 자는 없다는 생각에 우리 고대사를 널리 알리고자 『삼국사기』를 집필했다고 밝혔다.¹⁾ 본기 28권, 연표 3권, 지 9권, 열전 10권, 총 50권으로 이루어진 『삼국사기』는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한국의 고대사를 성실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삼국사기』는 이 때문에 조선 시대에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간의 많은 연구 및 검토에서 『삼국사기』는 다양한 비판과 해석을 받아왔으나, 『삼국사기』는 여전히 고대사 연구의 기본으로서 그 굳건한 자리를 엄중하게, 또 비밀스럽게 지켜가고 있다.

현재 사학계는 『삼국사기』의 사료적 가치를 상당히 인정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주된 이유는 사학자들이 『삼국사기』가 현존하는 최고(古)의 사서라는 점을 높이 평가해서일 것이다. 또한 『삼국유사』와는 다르게 『삼국사기』가 괴력난신을 최대한 배제하고, 설화나 신화보다는 정치사, 지리, 사회상, 자연재해를 기록하고, 인물 열전과 연표를 남김으로써 객관적인 역사 접근법에 더 충실한 것도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삼국사기』가 사료로서 높이 평가 받지 않았던 때도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와 1960년대 말이 특히 그러했다. 일제 강점기의 식민사학자들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정체성과 국력을 약화시키고자 했고, 식민사학자들의 사관이 해방 후 큰 변화 없이 이어진 1960년대 말의 사학계 역시 비슷한 논조로 『삼국사기』의 사료적 가치를 폄하하였다. 하지만 풍납토성의 발굴 및 고고학적, 사학적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삼국사기』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균형 잡히기 시작했다.

일제 강점기와 1960년대 말의 사학자들이 『삼국사기』의 사료적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에는 식민지라는 독특한 환경이 작용했으나, 어느 사료든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그 사료의 사료적 가치를 제대로 탐구하는 것은 역사가의 올바른 덕목이다. 유적 말고도 자연 환경도 사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풍속, 지명, 문서에도 사료적 가치가 있다. 프랑스의 사학자 로버트 단턴은 사서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문서에서 당시 시대상을, 더 나아가 당시 민중의 망탈리테를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그의 저서 『고양이 대학살』에서 “인종지학적 역사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세계로부터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연구한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의 우주론을 캐내어 그들이 마음속에서 실재를 어떻게 구성하였고 그들의 행동으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를 보이려고 시도한다.”²⁾라고 말하며 사소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당시대 사람들의 무

1) 김부식, 진삼국사기표, 1145.

2) 로버트 단턴, 『고양이 대학살』, 조한욱, 현대의 지성, 1996, p.15.

의식에 깊이 영향을 받아 남아있는 것,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추론을 해내서, 당시대 사람들의 정신, 즉 망탈리테를 파악하고자 했다. 예를 들면 로버트 단턴은 18세기 백과전서의 인기 현상에 대해서 대중이 지식인을 영웅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의 지식에 계몽되어갔으며, 이것이 프랑스 혁명을 야기한 수많은 힘들 중에 하나로 평가한다.

『삼국사기』는 민족주의 사관이나 식민사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나선형적 주기사관이나 변증법적 사관 등의 다양한 사관으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삼국사기』를 망탈리테 사관에 입각해서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삼국사기』를 망탈리테 사관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삼국사기』에서 잘 거론되지 않는 당시 백성의 시대상을 탐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은 왕조, 지배계층 중심의 정사 위주로 『삼국사기』를 해석한 전례 사학계의 주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는 것으로, 김부식의 『삼국사기』 서술에 나타나는 패턴을 바탕으로 그 이면에 작용한 고대 한국인의 정신을 찾는 과정이다. 사서의 가치는 그것의 사료적 의의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당대의 문화, 지리, 사회 등 당시대 사람들의 시대정신이 녹아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위대한 고전으로서 『삼국사기』를 오늘 날에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인의 뿌리 정신을 탐구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망탈리테 사관으로 삼국사기를 봐야 하는 이유이다.

압도적인 분량의 『삼국사기』 본기에서부터 고전 읽기를 시작한다면,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은 정사도 아니고, 왕의 가계도도 아닌, 자연재해 기록일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수많은 자연재해가 기록되어 있는데, 신라 본기에만 등장한 자연재해는 총 163회로, 가뭄과 기근 40회, 지진 40회, 우박 12회, 서리 10회, 천둥, 번개 9회, 큰 눈과 추위 9회, 큰 바람 8회, 홍수 7회, 황충 7회, 화재 6회, 수질오염 5회, 황사 3회, 이상기상으로 인해 재해 3회, 안개 2회, 용오름 현상 1회, 이조 출현 1회 등이 있었다.³⁾ 또한 『삼국사기』의 초기에는 “죽은 사람이 한 달 뒤에 부활했다.”, “풀이 스스로 일어섰다.”, “성벽이 알아서 무너졌다.”, “용이 우물에 나타났다.” 등의 초자연적인 현상도 기록이 되었다. 일일이 자연재해를 기록하고, 괴력난신을 피하고자 했음에도 초자연적 현상을 기록한 것의 이면에는 이 현상들을 당시대 사람들이 무척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기록은 일종의 패턴처럼 보일 정도로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기록들은 오늘 날 뉴스에서 매일 사건 사고를 보도하듯이 기록된 것이며, 실제로 저 현상들은 자주 있으면 자주 기록될 만큼 중대한 사건이다. 게다가 당시에는 농업 사회였으므로, 자연재해는 생존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의식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당대 사람들은 자연재해를 기록하면서 그 현상의 법칙과 인과관계를 나름대로 알아내고 설명하려 했다. 무지에 대한 두

3) 강철성, 「통일 신라왕조의 자연재해 인식-자연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지형학회지』, 19권, 한국지형학회, 2012, p.1.

려움으로도 표출된 자연재해에 대해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당시 그들에게 이야기는 과학 법칙만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그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견론이었다. 천견론은 하늘이 왕과 그 백성을 벌하고자 자연재해를 일으킨다는 것으로, 하늘과 신, 자연을 숭상하고 경외하던 당시 사람들의 자연관을, 망탈리테를 보여준다. 따라서 왕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제사를 지내거나, 곡식을 나누어주거나, 가벼운 형량의 죄수를 풀어주는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은덕을 베풀고 하늘에게 자신의 잘못을 선처해달라고 빌었다.

초자연적 현상 역시 자연재해와 같이 천재지변에 속한다는 맥락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에 자주 기록되는 초자연적 현상이란 용의 등장으로, 용의 등장은 왕조의 길흉과 연계되었다. 시조 혁거세 60년, 용 두 마리가 금성 우물에 나타나더니 폭풍우가 심히 불고 벼락이 쳤다. 그리고 1년 뒤, 시조 혁거세 61년에 박혁거세가 사망한다. 시조의 죽음을 용이라는 초자연적 존재와 연계시킨 흔적이 나타나는데, 이런 패턴은 유리 이사금에도, 경문왕에도 나타난다. 이는 왕이라는 지배자의 죽음을 용이라는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존재와 결부시켜 그것을 더 강조하고 성스럽게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용의 등장 현상을 오늘 날에는 용오름 현상이라는 일종의 기후 현상으로 파악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영수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고, 옥황상제의 사자로 인식되고, 기후를 마음대로 조종한다고 여겨지는 용으로 용오름을 생각한 것이다. 굳이 용을 찾을 필요 없이, 왕이 죽기 전에 “성벽이 무너졌다.”거나, “지진이 일어났다.”, “겨울인데 물이 얼지 않았다.” 등의 이상 징후가 기록된 사례도 꽤 많았다. 이는 왕이 하늘에게 선택받은 존재이며, 그의 죽음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수반할 정도로 왕이 신성하다는 것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고대 한국인들은 자연재해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부터 하늘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경고, 길흉 예언)라는 의미를 만들어내고, 제를 올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방식을 표현했던 것이다.

2. 삼국사기, 소설에 영감을 주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 『삼국사기』에서 삼국마다 건국 초기 지배자들의 연대가 애매모호하고, 오류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내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신라 8대 왕 아달라 이사금 재위 기간 동안 10년의 기록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즉, 아달라 이사금 재위 22년부터 10년간의 기사가 없는 것이다. 이는 집필 및 편집 과정에서의 실수일 수도 있으나, 『삼국사기』가 『신라고사』, 『삼국고사』, 『고승전』 등의 다른 문헌도 참고하고 있으며, 다른 왕들의 기록에는 이런 특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냥 실수로만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아달라 이사금의 사라진 10년 뒤, 재위 31년에 아달라 이사금은 사망하고, 그 뒤로 박씨 세력은 한동안 왕위 세습을 하지 못하게 된다. 9대 왕 벌휴 이사금은 석씨 세력으로, 왕권의 교체가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아달라 이사금의 사라진 10년은 왕권 교체 및 권력 투쟁으로 정세가 불안정했던 시기라고 생각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몇 개의 흔적들을 볼 수 있었는데, 『삼국사기』에는 아달라 이사금에게 아들이 없고 사람들이 석별휴를 성인이라 칭송하여 석별휴가 왕이 되었다고 하지만, 『신라박씨선원세계도』에 의하면 아달라 이사금에게는 벽방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 훗날 박씨 세력을 다시 왕좌에 앉힌 신덕왕은 아달라 이사금의 직계 후손이라고 하였으니, 뭔가 수상쩍은 부분이 많았다. 석별휴가 권력을 잡은 원년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사람들이 그를 성인이라고 불렀다고 미화하는 기록 역시 석별휴의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그 뿐만이 아니었는데, 10대 왕 (석)내해 이사금의 어머니는 내례부인이었다. 내례부인은 원래 아달라 이사금의 아내였는데, 별휴 이사금의 둘째 아들 석이매와 연분을 맺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석씨 세력의 수장이었던 별휴가 박씨 세력의 아달라 이사금과 내례부인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권력을 차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통해 사라진 10년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에 13대 왕 미추 이사금의 아버지로, 김씨 세력이 왕좌에 가까워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여겨지는 김구도가 김알지의 5대손이라는 점, 아달라 이사금 재위 11년에 용이 나타나고 12년에 아찬 길선이 반란을 꾀하다 발각되어 실패했다는 점, 신라가 아직 제정이 분리가 된 사회가 아니었다는 점, 아달라 이사금 재위 21년에 흠비가 내렸다는 점을 모두 이용해서 나는 [광해], [관상]과 같은 사극 문화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보고자 한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사건들과 그 이면에 숨겨진 당시 사람들의 망탈리테,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해서 사라진 10년에 있었을 박씨, 석씨, 김씨 세력간의 세력 다툼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3. 흠비

등장인물 : 김자성(허구), 아달라 이사금, 내례부인, 박벽방, 석별휴, 석이매, 김옥도(허구)

배경 : 아달라 이사금 재위 21년, 신라의 서울

줄거리

서울의 뒷산 중턱에 있는 한 허름한 집은 봄비는 적은 없어도 사람의 발길이 끊기는 적은 없었다. 그 집은 누군가가 버리고 간 집이나 김자성이라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 김자성은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나타나 놀라운 통찰력과 기이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는 물의 방향을 알며, 땅의 기운도 꿰뚫고 있고, 천상의 일을 해석할 수 있으니, 사람들은 그를 신통하게 생각하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움을 구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불길하다고 했으나, 물이 나오는 곳을 정확히 보아 맑은 물을 흐르게 한 뒤로, 그를 아는 몇몇 사람들은 그를 신통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도움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그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먹을 것을 주었고, 김자성 역시 뿌듯해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비가 내리고 벼락이 치던 어느 날 밤, 그가 벌떡 일어나더니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 난 상처를 어루만지며 누구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통곡 소리에 묻혀 아무도 그가 왜 우는 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며칠 뒤 자성은 다시 마을

로 나와 멀쩡하게 웃었으니, 사람들은 그에게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노라 생각했다.

아달라 이사금 21년에 서울에 처음으로 흠비가 내려 하늘이 가려지니 서울은 난장판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에 들어가 서로를 보호하기 바빴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흠먼지만 하늘에 떠 있자 마을의 어르신 범원이 사람을 보내 자성을 데려왔다. 자성은 하늘이 가려지고, 아래에 있던 흠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니, 실로 역모의 기운이 서울에 가득하다고 말했다. 자성은 땅에 물을 뿌려 흠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들은 사람마다 모두 놀라게 만들었으니, 서울의 거리마다 역모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예로부터 천재지변은 하늘이 사람들을 벌주는 것이라 사람들이 생각했으니, 제사장과 왕이 하늘의 뜻을 전달하고 그에 움직인다고 알고 있던 사람들은 흠비 역시 괴이한 일이라고 보며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했다. 그러던 중에, 흠비가 사라진 뒤 며칠이 지나고, 궁에서 사람이 내려와 자성을 잡아갔다.

원문도 모른 채 옥에 갇힌 자성은 자신은 억울하다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밤이 되어서야 누군가가 나타나더니, 사람들에게 흠비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말하라고 성을 냈다. 자성은 자기가 입을 함부로 놀려 잡혀왔다고 생각하며 죽을죄를 졌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뭐라고 말했는지 말해보라는 질문에 자성은 흠비를 역모의 기운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 연고가 참으로 현명하고 말이 맞는 지라, 대답을 들은 질문관은 교도관을 시켜 자성을 어딘가로 끌고 갔다.

눈을 뜬 자성은 휘황찬란한 궁궐에 자신이 왔음을 발견했다. 그의 앞에는 금색의 어떤 장막 같은 것이 있었는데, 사이사이마다 틈이 있어서 건너편에 누군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성은 너무 당황했고, 어처구니가 없는지라 뭘 어찌할 줄 모르고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궁궐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그의 뒤에는 대검을 들은 호위무사 여럿이 있어 발도 땀 수가 없었다. 그런 자성 앞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장막 뒤에서 들려왔다.

“네 이름이 김자성이냐?”

상황을 봐서 자성은 장막 뒤에 사람이 이사금이라고 생각했고, 아달라 이사금이 자신에게 질문을 내린 것이라 생각했다. 자성은 서둘러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바닥에 붙이며 답했다.

“네, 제 이름이 자성이옵니다.”

그 뒤 이사금은 그가 어디 사는지, 뭘 하고 사는지를 물었다. 이사금의 질문에 자성은 말을 잊지 못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저 사람 돕는 일이라고 하기엔 이사금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자신이 신통하다고 자랑하듯이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자성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땀만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사금은 이미 그가 무얼 하고 사는지 알고 있었고, 자성은 어찌 이사금이 한낱 자신의 일을 알고 있는지 당황했다.

“흠비가 어찌 역모의 기운이더냐?”

자성은 저 질문이 나올 거를 예상하고 있었고, 상황 상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했다. 세상을 헛소리로 어지럽히는 죄로 죽일 거였으면 벌써 죽었다고 생각

해서였다.

“흠이란 자고로 사람들 아래에서 밟히는 것이요, 하늘 아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흠이 사람과 같이 서있고 하늘을 흐리게 하고 있으니, 이는 아래에서 위로 순서가 뒤 바뀌고 앞날이 어두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천한 소인은 흠비는 역모의 기운이 서울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사금은 한참 뒤에 몸을 숙여 자성의 얼굴을 보았는데, 자성의 얼굴에는 큰 흉터가 있었다. 이사금은 흉터가 왜 났는지 물었으나, 자성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대답을 피했다. 이사금은 왜 김씨면서 김씨 세력 촌에 살지 않는지 물었고, 자성은 자신이 더 이상 김씨 사람과 지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흉터를 갖고 있음에도 풍수지리에 능하고 사리분별에 능통하니 실로 신통하고 괴이한 능력을 가졌구나. 하늘을 읽고, 땅을 읽고, 사람을 읽을 수 있으니, 이는 제사장에 못지않다.”

자성은 그 어인 말씀이냐고 고개를 젓지만, 이사금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내가 덕이 부족하여 세상의 이치를 보는 눈이 흐리니, 이는 하늘이 내게 주신 선물 이도다.”

자성은 자신이 무슨 말을 방금 들었는지 의아해했다. 이사금이 말을 이어 설명하는데, 그 뜻은 이러했다.

10년 전, 서울에 용이 나타났을 때, 용이 자신을 시조의 환생이라고 소개하고, 모반을 경고하고 사라졌었다. 이를 기이하다 여긴 이사금은 오랜 수사 끝에 아찬 길선이 모반을 꾸미고 있음을 알았고 덕분에 그 모반을 막았다. 아달라 이사금은 모반 사건 이후, 천재지변과 괴이한 사안에 주목하는 것을 세력을 지키는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고, 신통한 능력을 지닌 자성을 자신의 책사 같은 내통자로 삼고자 했던 것이었다. 자성은 몸들 바를 모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사금의 부탁에 따르는 것이라 생각했다. 자성은 이사금에게 눈과 귀가 되어 괴력난신의 일들을 보고하고 기록하겠다고 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제사장인 석씨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사금에게 보고하고, 이사금을 위해서만 일하라는 것이었다. 오직 이사금만을 위해야 할 것이며, 입을 함부로 놀리다간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한 아달라 이사금, 자성은 제사장을 하는 석씨 세력과 이사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느꼈다.

자성은 이사금에게 인사를 드리고 궁궐을 빠져나왔다. 왕의 특별 호위 무사인 재매가 말에 태워 그를 궁궐 밖의 어느 거리에 보내주니, 자성은 기묘한 날이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집을 찾아갔다. 며칠 뒤, 제사장이 석벌휴로 바뀌었다는 말이 거리에 돌면서, 자성은 흠비가 전 제사장 석구광의 역모 시도가 있었던 것을 보여준 건 아니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5년이 지난 후 어느 날, 자성의 집에 황새가 또 나타났다. 자성은 그동안 황새가 집에 나타날 때마다 채비를 마치고 궁궐로 떠났으며, 황새를 갖고 궁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이사금이 그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고, 자성은 자신의 능

력이 되는 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 도와주었다. 이 때문에 권력층의 주요 인물들은 아는 듯 모르는 듯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이번에 자성은 수려한 비단으로 곱게 포장한 자기를 들고 궁궐로 향했다. 그 자기는 내례부인의 임신을 축하하는 선물이었다. 이사금은 기특하다며 칭찬했고, 내례부인도 고맙다고는 인사했다. 자성은 변변찮은 선물이니 진심만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사금은 내례부인의 배를 쓰다듬으며 자성이가 선물을 주었으니 좋은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내례부인은 웃었으나, 그 웃음은 그리 길지 않았다.

몇 달 전, 황새가 자성의 집을 찾아왔을 때, 그 때도 자성은 이사금과 내례부인을 만났다. 이사금은 자성에게 내례부인이 아들을 가졌다고 알려주었고, 자성은 몸 둘 바를 모르며 경축했다. 이사금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최근 동향을 물었고, 자성은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자, 이사금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서 기쁘다고 말했다. 최근 석씨 세력과 김씨 세력이 힘을 합치는 것 같아 여간 안색이 안 좋던 이사금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자 자성도 무척 기분이 좋았다. 자성이 궁궐을 떠나려는 때에, 내례부인 사람이 그를 조용히 불러 내례부인 앞에 무릎을 굽히게 했다. 내례부인은 엄숙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자성에게 말했으니, 다음과 같았다. 처음부터 이사금과 내통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이사금이 그 필요성을 설명했기에 두고 보고 있었는데, 자신이 이제 태자를 가진 몸이 되었으니, 궁궐에 사악한 기운을 몰고 와 왕실을 어지럽힌다면 자신이 자성을 죽이겠다는 것이었다. 자성은 할 말이 없었으므로, 조심하겠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드리고는 궁궐을 나왔다. 이것이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니, 자성은 내례부인의 웃음이 그리 길지 않았던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제사장이었던 석벌휴와 석씨 세력은 신흥 세력인 김씨 세력을 포섭하여 왕위를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4대 이사금이었던 탈해 이사금 때 석씨가 왕위를 잇지 못하고, 다시 박씨 세력에게 왕위가 넘어간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언제 왕위를 박씨로부터 되찾을 수 있을지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석탈해의 아들인 석구추의 장남인 석구광은 제사장으로 역임하며 박씨 세력을 견제했고, 비밀리에 아달라 이사금을 암살하려 했으나 실패하면서 제사장은 석구광의 동생 석벌휴에게 넘어갔다. 암살 시도가 내부에서 일어났고 박씨 세력은 이 기회에 석씨 세력을 몰아내려 했지만, 석씨 세력이 범인을 궁녀로 조작해내면서 석씨 세력이 모두 잡힌 것이 아니라 그저 제사장만 바꾸는 정도로 일은 무마 되었다. 석벌휴는 형 구광의 암살 시도가 실패한 것이 박씨 세력이 견제해서 그런 것이라 판단내리고, 박씨 세력에 분열을 일으키고자 했다.

제사장은 아들이 없었던 왕비 내례부인에게 자신의 아들 석이매를 소개시켜주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박씨 세력에 분열을 일으켰을 때 같은 편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내례부인을 점찍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열을 시킬 방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 아달라 이사금과 내례부인 사이에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다는 것에서 영감을 얻은 벌휴는 불임을 이용해 분열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다.

별휴는 자신의 두 아들 석골정과 석이매를 소개시켜주어 아들을 갖는 것이 여자로서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데 은연중에 강조했고, 별휴의 계략대로 내례부인은 두 아들, 특히 석이매를 볼 때마다 이런 아들을 갖고 싶다는 말을 은연중에 보였다.

그런데 불임을 갖고 분열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무마 되었으니, 내례부인이 아들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별휴의 이런 계획에 의심을 가지던 김알지의 3대손이자 김씨 세력의 현 수장인 김옥도는 임신 사실에 마침내 석별휴를 찾아가 따졌다. 별휴 역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역정을 내더니, 새로운 계략을 꾸미려고 했다. 그 때, 자성이 궁궐을 다녀갔고, 자성을 본 옥도는 기겁을 했다. 어떻게 자성이 서울, 궁궐에 있느냐는 것이었다. 자성이 김씨 세력 촌에서 떠난 게 자신 때문이라고 하는 옥도, 그 말을 듣던 중에 별휴는 기상천외한 계략을 짜게 된다.

며칠이 지나고, 자성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오는데, 바로 김옥도였다. 사람 몇을 데려온 옥도에게는 천궁에 있던 장식이 몇 가지 걸쳐 있었다. 옥도의 등장에 자성은 성을 내며 당장 집에서 꺼지라고 욕했다. 옥도는 웃으면서, 자성이 떠날 때는 죽을 것처럼 떠나더니만 이렇게 호위호식하면서 살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옥도의 입에서 “자인이 한테 미안하지도 않더냐?” 라는 말이 나오자, 자성은 눈물을 흘리며 집안의 식기들을 옥도에게 던졌다. 그러자 옥도의 사람들이 자성을 심히 두들겨 팼는데, 옥도는 자성에게 조용히 살라고 경고하며 떠나고, 자성은 정신을 잃었다. 한참 뒤 자성이 눈을 떠보니 이미 집안은 난장판이 된 상태였다. 자성은 자인이라는 이름을 몇 번이고 되새기며 통곡했다.

“에구머니나!”

태자의 출생을 기뻐해야할 순간에 모두가 경악했다. 이사금을 비롯해서, 내례부인과 제사장 별휴, 궁녀와 무사들 모두가 기겁하며 놀랐다. 태자 벽방의 생김새가 괴이했기 때문이었다. 귀를 하나만 갖고 태어난 태자 벽방의 모습은 자성도 놀라게 했다. 모두가 사색이 되어 이 흥조를 어찌하면 좋으니 걱정하니, 궐의 분위기는 마치 공기 중에 칼이 서린 듯이 불안했다. 자성은 어떻게 반응해야할지를 몰랐다. 자성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이사금과의 독대를 마쳤다. 자성이 떠나자마자, 내례부인은 곧바로 이사금의 궁궐에 들어왔다.

매우 화가 난 표정의 내례부인은 어떻게 자성을 궁궐에 또 부를 수 있는 거냐고, 자신은 대체 이사금에게 어떤 존재냐고 물었다. 이사금은 누구 앞에 무례한 언사냐면서 따지지만, 내례부인 역시 화가 단단히 났는지 주저하지 않고 따졌다. 태자 벽방이 괴이한 외모를 가져 박씨의 흥조가 된 것은 아달라 이사금이 자성이라는 괴인과 어울러 다니면서 이상한 일, 불길한 일만 공부해서라고 따졌다.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현상에 아달라 이사금과 자성이 너무 몰두해서 그 사악한 기운이 궁에게 번져 태자에게 이런 변고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이사금은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하여 내례부인의 뺨을 갈겼다. 내례부인은 눈물을 터트리고, 이사금은 몹시 흥분하여 울분을 토해냈다. 나날이 강력해지는 석씨 세력과 신흥 김씨 세력을 포섭한 제사장 석별휴의 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흔들리는 왕위를 지킬 수 있는 일은

그런 괴이한 현상을 찾아서 하늘의 말을 듣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왕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그걸 천재지변을 해석해서 풀어내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아달라 이사금의 말은 애통하고 처절하여, 밖에서 어쩔 수 없이 듣던 호위무사들도 그 기분이 슬펐다. 내례부인은 아달라 이사금이 함부로 손찌검을 했다는 것에 분노하여 꺾을 박차고 나갔고, 텅 빈 꺾에서 이사금 혼자 오열하였다.

며칠이 지나, 내례부인은 벽방의 괴이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를 애지중지 보살폈고, 아달라 이사금은 부인과 태자를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아침 일찍 계림으로 가서 밤늦게 꺾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자성은 연락책이었던 황새도 오지 않고, 왕의 슬픔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 하였으므로, 걱정만 하고 있었다. 그 때, 석씨 사람들이 와서 자성을 천궁에 인도했다. 자성과 대면한 석별휴는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황새의 목을 꺾어버리면서, 이것이 다 자성이 불길한 기운을 왕궁으로 갖고 들어와서 그런 것이라고 말한다. 자성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왕궁에서 이런 불길한 일을 예견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있게 한 제사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따졌다. 자성의 말에 별휴는 화를 내며 그를 죽이려 했으나, 왕의 노여움을 더 크게 할 수는 없다며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성은 서울의 거리마다 사람이 잡혀가고 매질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태자의 용모가 벌써 소문이 퍼졌고, 그걸 입에 올리는 사람을 병사들이 와서 매질을 하고 잡아가는 것이었다. 아달라 이사금의 기분이 어떤지 대충 짐작이 가는 자성은 이번엔 자신이 직접 이사금을 찾아가기로 했다. 이사금이 계림에 자주 방문한다는 것을 들은 자성은 계림에 직접 찾아가고, 병사들은 그의 얼굴을 알기에 이사금이 불렀다고 생각하며 자성을 들여보내 주었다. 자성이 계림에 들어왔음을 알게 된 특별 호위무사 재매는 그를 말렸는데, 그 때 이사금이 넋을 잃은 표정으로 재매에게 다가왔다. 이사금은 자신이 용을 보았으며, 그 용이 말하기를 태자 벽방을 그가 태어난 방과 함께 불태워야 박씨가 살 것이라 했으니, 당장 태자를 잡아다 태어난 방에 놓고 불태우라고 일렀다.

자성은 연고를 묻지만, 이사금은 자신에게 다시 한 번 시조 혁거세가 환생한 용이 나타나 흉조를 경고했다고 말할 뿐이었다. 이 말을 들은 궁녀와 호위 무사, 부하 관리들 몇 명은 실로 당황해했다. 자성은 잘못 본 것 일거라고, 어느 시조가 자신의 자손을 죽이라고 말하겠냐고 하지만, 눈물을 흘려가며 자신이 마치 구원이라도 받은 표정의 아달라 이사금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자성은 곧바로 이사금이 용을 봤다던 곳으로 향했고, 그 곳에서 옥도의 장신구와 유사한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주변의 나무와 들판의 흔적을 보고는, 용이 거짓된 환영이거나 석씨 세력과 김씨 세력이 만들어낸 술수라는 직감을 받았다.

자성은 당장 재매를 불러 숲을 샅샅이 수색하라고 시켰다.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흔적을 본 재매는 그 사람들을 쫓다가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의 눈 옆에 상처를 냈다. 자성은 이를 듣고, 용은 이사금이 잘못 본 것이며, 얼굴에 상처가 난 사람이 이 현상을 만들어낸 배후 세력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사장 석별휴와 그와 한 패가

된 김옥도를 의심하는 자성은 석이매를 만나고, 석이매의 부하 중에 한 호위무사의 눈 옆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했다. 자성은 이사금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고하고 심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사금은 그를 만나지 않고, 자성은 하는 수 없이 내례부인을 만나러 갔다.

내례부인은 박씨 세력 중에서 그나마 석씨 세력과 친하고, 이사금의 최근의 행동에 실망하여 박씨 세력과 거리를 좀 갖게 되었으므로, 자성은 석씨 세력이 얼마나 이 사건에 개입되었는지 자신이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는 내례부인에게 자신이 태자 벽방을 살려낼 것이라고 외쳤다. 내례부인은 가뜩이나 이사금도 죽이려는 태자 벽방을 자성이 살린다고 하는 것에 의문을 품고 그를 방에 들여보냈다. 자성은 이사금의 분노와 실성이 심해 태자 벽방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자신이 이사금을 설득해서 용의 말이 잘못된 것이라고 고하고, 벽방을 살리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례부인은 여전히 그를 신뢰하지 못하는 듯하면서도, 당장 잡을 수 있는 줄이 그것 밖에 없기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으며 그를 돌려보냈다.

깊은 밤, 마침내 이사금은 자성을 입궁시켰다. 자성은 단도직입적으로 태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자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석씨 세력과 김씨 세력이 힘을 합쳐서 용이라는 환영을 만들어낸 것이니, 태자를 죽이는 것은 후계를 위협에 빠트림으로써 석씨 세력이 왕위를 찬탈하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만약 정말 용이었다면, 나무도 굽히고 들판도 굽혔을 것인데 그런 것도 없으며, 그 때 석씨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뒤에 있었다는 것도 밝혀주었다. 하지만 이미 아달라 이사금은 자신을 전에도 살려준 적이 있던 용의 경고를 확신하듯이 믿고 있었다. 이사금의 이런 확신이 아들 벽방의 기이한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한 자성은 용이 환영이라는 걸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아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걸로 접근하기로 했다.

“제 얼굴에 난 흉터를 물어보셨던 것은 기억나십니까?”

허공만 응시하던 이사금의 표정이 바뀌더니 자성에게로 그 눈빛이 옮겨갔다. 자성은 침착해하며 이사금에게 말을 이어갔다.

“이 흉터 말입니다. 그 때 저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결코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자성은 자신의 흉터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씨 세력 촌에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던 자성에게, 김옥도가 어느 날 그의 아들 자인을 죽이라고 명했다. 김옥도는 자신의 꿈속에서 김알지가 나타나 자성의 아들 자인이 김씨를 몰락시킬 거라는 예언을 들었다고 밝혔고, 자성은 자신의 아내를 옥도에게 바치지 않아서 꾸며낸 옥도가 만들어낸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자성은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세력 일가를 벗어나려 하나, 자성을 쓰러트리고 아들과 아내를 모두 붙잡아갔다. 자성은 아들이 죽는 걸 목격하고 분노하며 대꾸하지만 실패했다. 아내는 행방이 묘연해졌고, 자성은 아들을 구하지 못한 것을 사실상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얼굴에 큰 흉터가 나게 되었고, 그 때부터 세상의 이치를 꿰뚫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열하며 자신의 과거사를 밝힌 자성은 절대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아들을 죽이는 건 할 짓이 못 되며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꾸는 악몽은 항상 아들을 구하지 못하는 기억이었으니, 태자를 죽이지 말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사금은 광인처럼 조용히 웃더니, 웃음을 갑자기 멈추며 자성에게 다가갔다. 이사금은 흥터를 한번 만지더니 그 흥터를 짓이겼다. 고통스러워하는 자성이 바닥에 뒹굴자, 이사금은 격노하며 말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사금은 자성의 이야기가 눈물겹도록 슬프지만 자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수많은 자연재해 기록과 최초의 모반사태,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석씨 세력과 새로 부흥하는 김씨 세력, 아들은 갖기 어렵고, 눈앞에는 바람에 흩날리는 등불 같은 박씨 왕조가 이사금의 눈에 있었다는 것이다. 일개 백성의 남편이 아내와 아들을 살리지 못해 자살을 했다는 것으로 어찌 박씨 왕조의 몰락의 책임을 져야할지 모르는 자신을 훈계할 수 있냐는 말에 자성은 이사금의 인간적 고뇌와 슬픔의 깊이를 느꼈다. 이사금은 한동안 울분을 토하다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자성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수많은 자연재해와 괴이한 현상을 기록하게 하고 거기에 몰두하게 만든 것은 자성이었다고, 당장 내 눈앞에 있던 것이 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용으로 볼 수밖에 없게 만든 건 자성이었다고 하는 이사금의 말에 자성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사금은 자성을 지금까지의 정을 봐서 살려주니 다시는 자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하고 그를 집으로 보내게 해주었다. 호위무사 재매는 궁궐 밖으로 빠져나가는 자성에게, 이사금이 짓눌러 진물이 나는 걸 닦을 천을 배풀고는 그를 묵묵히 집에 데려다 주었다.

더 이상 사건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고, 벽방의 괴이한 외모와 지금의 궁궐 내의 비극적인 일들이 다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한 자성은 태자 벽방을 꼭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에게 내례부인이 친히 방문했다. 비밀리에 내례부인을 서울의 뒷산에서 만난 자성, 내례부인은 아들을 걱정하는 부모 마음이야 다 같은 것 아니겠느냐며 자신이 친히 방문한 이유를 말한 뒤, 이사금을 피해 어떻게 벽방을 데리고 도망칠 것이냐고 묻는다. 자성은 이사금이 용의 경고대로 벽방과 그의 방을 불에 태울 것이니, 사람을 시켜 벽방을 중간에 빼내오면 자신이 벽방을 데리고 숲에 숨어 있다가 추후에 서울의 한 거리에서 연락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내례부인은 알겠다고 말하면서, 불안해하면서도 자신의 아들을 꼭 살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를 별휴와 옥도가 지켜보고 있었다.

석별휴는 김옥도와 급히 회동을 했다. 별휴는 박씨의 직계 자손이 살아있으면 상황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하면서, 김옥도에게 김자성을 막고 아기와 자성을 모두 처리하라고 명했다. 자신은 제사장으로서 불태우는 행위를 왕 앞에서 직접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다. 사실 처음에 별휴와 옥도가 내례부인의 임신 소식을 들은 뒤 짠 계획은 이렇게 거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사금이 자성 덕분에 초자연적 현상에 굉장히 몰두하므로, 가짜 용을 사람을 시켜서 만들어내고, 그 용이 태자를 죽이라고 하면, 이

사건으로 박씨의 왕위가 끊길 것이고, 박씨가 분열되어 석씨와 김씨가 원하는 바를 쉽게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짰 것이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선지 정말로 태자 벽방이 괴이한 외모를 갖고 태어나자, 벌휴와 옥도는 이것이 왕위가 바뀔 거라는 하늘의 뜻으로 해석하며 이 기회를 잘 타서 태자를 죽여 박씨를 분열시키기로 했던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잘 된 기회를 김자성이라는 놈 때문에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김옥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며 김자성을 죽이고자 했다.

다음 날 밤, 궁궐은 바빠 움직였다. 이미 단념한 이사금은 벽방과 그가 태어난 곳을 불에 태우라고 궁녀와 신하들에게 말했고, 내례부인은 울며불며 매달려서 아달라 이사금이 눈치 못 차리게 행동하다가, 궁녀를 시켜 다른 아이로 바꿔치라고 시켰다. 아슬아슬하게 바뀐 태자 박벽방, 내례부인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그 태자를 조심히 자성에게 전달했다. 자성은 태자를 고이 잡고 열심히 달리며 숲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숨어있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 벽방이 태어난 궁궐은 벽방과 뒤바뀐 한 아이의 울음소리와 뜨거운 화염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 제사장 석벌휴는 계획대로 되길 바라는 흑심을 품고 신들린 춤사위를 추기 시작했다. 천궁 사람들이 불타는 궁궐을 중심에 두고 절을 하며 주문을 읊었고, 이사금은 두 눈을 감고 슬퍼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내례부인은 숨이 끊어질 듯 통곡하는데, 이는 연기를 넘어서서 자성이 실패해서 태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서였다.

숲 속으로 들어가는 자성과 그를 쫓는 의문의 괴한들, 칼이 춤을 추듯이 시뻘겋게 타오르는 궁궐에 들리는 주문과 보이는 춤사위, 이사금의 눈물이 떨어지고 내례부인의 통곡 소리가 들리니 그 날의 서울의 밤하늘은 무섭도록 어두웠다. 자신이 쫓기는 것을 안 자성은 통찰력을 이용해서 발걸음을 따돌리고 동굴에 들어가 태자 벽방을 안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동굴 밖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자성은 동굴 밖으로 나오는데, 이는 자성을 찾지 못하자 숲에 불을 지른 김옥도의 만행이었다. 자성은 당황해하며 나갈 길부터 살피는데, 그 때 김옥도에게 발각된다.

“나는 너와 태자를 죽여야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네 이놈...네 놈은 대체 어떤 글러먹은 녀석이기에 이런 천인공노한 짓을 한단 말이 더냐?”

“하하하. 이 녀석 이거 밖에서 굴러다니더만 입만 험악해졌구나.”

“네 놈이 태자를 이렇게 만든 것이냐?”

“내가 무슨 귀신이라도 된다는 거냐? 아니다. 난 그저 용을 만들어서 왕에게 충고를 했을 뿐이다.”

“네 이놈, 내가 너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는데, 어찌 그 따위 말을 지껄이는 게야. 하늘이 무섭지 않더냐?”

“하늘이 무서운지 말지 걱정해야 하는 건 네 놈이 할 짓이 아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이다. 아들 하나 구하지도 못한 녀석이 뭘 말이 많은 거냐.”

자성은 옥도의 말에 이성을 잃고 돌진했고, 옥도는 자성을 쓰러트렸다. 불타는 숲에 쓰러진 자성, 자성은 피를 흘리며 말했다.

“내가 널 죽여야 하거늘...그래야 자인이가...자인이한테 미아...컱...미안하지 않은데...”

“애비 노릇 못한 게 평생의 한 인거냐? 그래서 네 자식도 아닌 태자를 저렇게 살리려고 애를 쓰는 거야? 나라의 안위 앞에서 남의 자식 애비 노릇을 하려고 자처를 하니 문제가 아니더냐!”

자성은 정신을 잃어가고,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했다.

“쫓쫓. 그러게 왜... 예휴.”

욱도는 칼을 들고 자성에게 가서 자성의 흉터를 짓이기며 말했다.

“내 어서 너를 아비노릇하게 해주마.”

욱도는 단칼에 자성을 베어버리고, 자성의 피는 그렇게 불타는 산 속으로 흘러갔다. 욱도는 이 근처에 벽방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산에 불을 냈으니 알아서 죽을거라 생각하며 후퇴했다. 그 뜨거운 화염은 궁궐 내에서도 일어났으니, 아이의 앓고 가는 비명소리가 마침내 끝이 나더니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 버렸다. 이사금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갔으니,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이며, 자신의 무능력함, 그리고 제발 모든 게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내례부인은 이런 짓이 일어났다는 것에 믿을 수 없으며 통곡했다가, 더 이상 울 힘도 없어서 쓰러졌다. 제사장 벌휴는 재를 움켜잡더니 조심히 바닥에 뿌리면서 음흉한 미소를 보였다.

내례부인은 시름시름 앓아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자성이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자성이 숨어있기로 한 산이 농부의 잘못으로 타버렸으니, 내례부인은 자성이 태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부인은 자성이 굳이 태자를 그렇게 열심히 구하려고 했던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 생각이 들고 나니 내례부인은 이 모든 것이 이사금과 한 패인 자성이 자신을 속이고 아들을 죽인 뒤 잠적하고자 만들어낸 계략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만큼 피폐해져 가던 내례부인은 결국 기운을 차리더니 바로 제사장이 있는 천궁으로 향했다.

제사장 벌휴는 마침내 내례부인이 기운을 차렸다면 기뻐하는데, 내례부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내례부인은 제사장에게 김자성이 자신을 속여 아들을 죽였으며, 자신의 아들을 한낱 환상에 빠져 죽이게 할 정도로 미친 아달라를 더 이상 이사금으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제사장은 놀라는 척을 하면서도, 자신이 들은 게 맞는지 확인하더니, 그 말이 틀린 말이라고 부정하지 않으면서 부인을 위로했다. 이를 몰래 지켜보던 김욱도는 박씨 세력에 분열이 일어났으며, 더 이상 내례부인이 아달라 이사금의 편이 아님을 확인했다. 궁궐로 돌아가기 전에, 내례부인은 제사장을 시켜 김자성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지워버리라고 명했고, 제사장은 알겠다고 답한다. 석벌휴와 김욱도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계략이 성공했음을 자축했다.

조력자, 아내, 아들을 모두 잃은 아달라 이사금은 텅 빈 궁궐에 드높은 황금빛 의자에 혼자 앉았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위로해주지 않았다. 가장 상처 받고 외롭고 두려운 아달라 이사금은 두 눈을 질끈 감으면서 두 손으로 가슴을 쳤다. 그 넓은 궁궐 실내에 아무도 이사금의 편이 없기에 그 소리 없는 통곡은,

그 두드림은 더욱 크게 들렸으나, 아무도 그 두드림에 놀라지 않고, 놀란다 해도 왕에게 달려가지 않으니, 아달라 이사금은 자신이 잃은 것들을 그렇게 느꼈다.

서울이 흐려지고, 하늘이 가려졌다. 땅의 먼지들과 흙이 공중에 떠다니고, 자신을 밟은 사람들과 같이 서 있으니, 이를 흙비라 하겠다. 먼지로 자욱해진 서울의 하늘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4. 흙비 해제

적당한 분량 안에 10년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아달라 이사금과 박씨 세력이 권력을 놓치게 되는 결정적인 일을 소설화하기로 판단했다. 내례부인이 내해 이사금의 어머니이므로 내례부인이 석씨 세력에게 넘어갔다는 추론 하에, 아달라 이사금과 내례부인이 분열될만한 사건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엇이 근친혼까지 하며 세력을 결집한 당시 박씨 세력을 분열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신라박씨 선원세계도』에 아달라에게 벽방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다는 구절이 떠올랐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박씨가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 하에 태자 벽방의 생사를 어떻게 연관시키면 분열이 개연성을 갖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달라 이사금이 벽방을 죽이기로 하고, 이에 분노한 어머니이자 왕비인 내례부인이 석씨 세력에게 넘어간다는 것으로 구성했다.

그렇다면 이사금이 아들 벽방을 죽일만한 이유가 있어야 했다. 박씨 왕조의 뒤를 이을 친아들을 죽일 정도로 강력한 동기가 필요했는데, 아달라 이사금 때 최초로, 아찬 길산에 의한 모반 사태가 있었고, 자연재해도 유달리 많았다는 것, 그리고 유리 이사금 뒤로 한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용이 나타났다는 것이 눈길을 끌었다. 여기서 망탈리테 사적 접근으로 천견론을 플롯에 이용해서 아달라 이사금이, 무력한 이사금으로서 초자연적 현상에 주목하는 것 밖에 권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면 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자성이라는 인물을 넣기로 했다.

용은 자고로 알을 낳는 법인데, 시조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는 점, 또 박혁거세가 죽을 때 용이 나타났다는 점을 이용하고, 용이 나타난 다음 해에 아찬 길산의 반란이 일어났다가 그 반란이 실패되었다는 점에서 영감을 얻어서 박혁거세가 환생해서 아찬 길산의 반란을 예견하였고, 그 사건이 아달라 이사금에게 큰 충격을 주어 초자연적인 현상에 빠지도록 이야기를 짰다. 그렇다고 아들을 그렇게 쉽게 죽일 것 같지는 않아서, 귀가 한 쪽이 없었다는 것을 넣었다. 근친혼이 신라 왕조 초기에 흔했으므로 열성이 유전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끔 말이다. 너무 역사적 추론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김자성의 가족 이야기를 넣었고, 감정적으로 클라이막스 부분을 아달라 이사금과 자성의 독대에 넣기로 했다.

자성의 이야기를 꾸미던 중에, 김씨 세력에 대해서도 생각이 났다. 신라 초기 중요 인물이었던 김알지, 그의 후손들은 계속 세력을 확장해갔을 것이고, 훗날 구도를 중심으로 해서 김씨 세력은 왕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김씨를 신흥 세력으로 표현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옥도라는 가상의 인물을 김알지의

3대손으로 설정하면서 5대손 김구도의 자리를 남겨놓았고, 또 석씨 세력의 경우, 신라가 제정분립이 되지 않았으므로, 제사장 정도로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에 석별휴를 제사장에 넣었다. 석탈해의 아들 석구추의 장남인 석구광이 흠비 현상과 연계되는 모반 현상의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초자연적 현상을 더욱 그럴 듯하게 준비했고, 내레부인이 석이매를 보며 “이런 아들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게 해서, 훗날 둘 사이에 내해 이사금이 태어날 여지를 만들어놓았다.

『삼국사기』라는 사료를 바탕으로 망탈리테 사관으로 접근을 해서 당시 한국인의 정신을 파악해보고, 역사적 추론을 통해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실로 인상적인, 잊을 수 없는 즐거운 경험이었다. 뛰어난 작품이 나오지 않아 다시 한 번 나의 미숙한 능력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부디 과제를 열심히 하려했던 마음만은 교수님께 전달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